

시 민 건 강 국

서울시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현황

보건의료정책과장 : 최현정 ☎2133-7505 마약대응팀장 : 박행엽 ☎7517 담당 : 지윤선 ☎7518
의약무팀장 : 유희정 ☎7531 담당 : 문선희 ☎7533
정신건강과장 : 이경희 ☎2133-7838 정신건강정책팀장 : 김영인 ☎7544 담당 : 김혜정 ☎7545
식품정책과장 : 양광숙 ☎2133-4700 외식업위생팀장 : 이용호 ☎4715 담당 : 이희진 ☎4711

시민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문제에 대해 마약류 치료·재활 연계, 예방교육·홍보 및 점검을 통해 시민 체감도 높은 관리대책을 추진하고자 함

I 최근 마약류 범죄 동향

□ 마약류 사범이 **저연령층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**

- 2020년 이후 마약류 사범 급증하고 있으며, 마약류 압수량 또한 지속 증가세로 **국내 마약류 범죄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**
 - 마약류 범죄계수*가 이미 통제가능 수준인 20을 넘어선 상태로 아직 미국, 유럽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'24년 55.6 수준으로 예상되는 등 **폭발적 확산세에 있음**
- * 인구 10만명 당 적발된 마약사범 수(주요국 : 미국(572), 호주(453), 영국(220), 일본(16))
- 마약류 압수현황도 과거 전통적인 아편이나 헤로인, 코카인 등은 줄어드는 반면 **MDMA(엑스터시), YABA(아바), LSD 등 신종마약이 급속도로 증가**
- 특히, 인터넷·SNS 등을 통한 마약류 진입장벽이 낮아져 **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해 지고 있음**
 - 전체 사범 중 20대의 비중이 30% 이상을 차지하며, 10대의 경우 그 증가폭이 가장 큼

□ **국내 마약류 범죄 확산 주요 원인**

- SNS(텔레그램 등), 다크웹, 암호화페 등을 이용한 **비대면 마약거래**의 활성화
- 파티문화 확산 등 **클럽·유흥주점 관련 마약류 사범**의 급증 ※ 최근 4년간 3.6배
- 국제 마약조직 및 외국인을 통한 **해외 마약류의 국내유입** 증가
- **의료용 마약류** 처방의 지속 증가, 병·의원이 마약 시작의 주된 경로로 작용

II 그간 추진실적과 과제

▶ 마약류 종합대책 수립('23.5.) 이후 **검사·치료·재활 / 교육·홍보 / 감시·단속** 등에 일정부분 성과, 정책 대상자 수 및 서비스 접근성에는 한계

□ 주요 추진실적

검사 · 치료 · 재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5개 보건소에서 마약류 검사키트 활용 익명검사 시행 ('23.8~) 신규 - 양성인 경우 은평병원에 정밀검사 의뢰 및 치료·재활 연계서비스 제공 ※ 익명검사 556건 중 양성 9건 ('23.8.~'24.7.) ○ 청소년·마약범죄 피해자 대상, 은평병원 마약류 중독환자 외래진료 확대 -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우선 진료 및 월~금 외래진료 슬롯 10회 배정 ('23.7~) ○ 일상생활 유지하며 중독치료 가능한 '동행의원' 24개소 운영 ('23.9~) 신규
교육 · 홍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고 710개교, 학교 밖 청소년,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교육 23만명 실시 ('23.4~) -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및 역량강화 교육 ('24년 30명) - 4월 '마약류 집중 교육의 달'로 지정, 「찾아가는 마약류 예방교육」 집중 추진 ○ 세계마약퇴치의 날('23. 6.26.)과 연계한 기본 콘텐츠(포스터, 영상) 제작·배포, 청소년 마약류 접근차단을 위한 공모전('23. 7.) 개최 및 확산 등
감시 · 단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치구 CCTV 통합관제요원 대상 교육 및 자료 제공으로 감시역량 강화('23.5~) ○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예방활동(오프라인, '24.2.~7.) 및 온라인 점검 강화('23.~) ○ 시-구-경찰 협업, 유흥기관 11,365개소 점검 (2,493명 투입, '23~24.7월말')

□ 보완과제

- 마약류 중독자 대상 **치료·재활**을 위한 **정책 대상자 수 한계**
 - 서울시 마약사범은 약 1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나, 은평병원 및 중독치료 동행의원을 통한 치료·재활역량은 여전히 부족
 - ※ 마약류 중독진료실적: 은평병원 469건('23년 313건, '24년 156건), 동행의원 1,206건('23년 401건, '24년 805건)
- 마약류의 **일상침투가 심화**되고 있으나, **여전히 낮은 서비스 접근성**
 - 일반시민 대상 **마약범죄 성행** 및 마약류인지 모르고 복용 후 중독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, 일반시민 대상 **마약상담 및 재활서비스** 제공기관 부족

Ⅲ 세부 추진현황 ('24. 7월말 기준)

1. 중독재활시설 인프라 구축

① 마약관리센터 조성

- (공간조성) 마약관리센터 조성을 위해 **은평병원 현대화사업 재설계** ('24.3.~7.)
 - 공사발주 : '24. 10월 예정 (마약관리센터 최우선 착공)

※ **은평병원 현대화** : 일반병동 축소(218→153병상) 및 음압병실 5개실(15병상) 구축 등
▶ 지하2층/지상6층, 연면적 18,406㎡ 중 8,974㎡ 리모델링 (사업비 : 25,910백만원)

- (운영방안)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서울형 마약 중독 질환자 통합관리모형 도출을 위해 **운영모형 연구 학술용역 추진**
 - 사업비 : 120백만원 / 연구기간 : 착수일부터 8개월 ('24. 6. ~ '25. 1.)

상담·치료	재활·사후관리	연구·교육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마약류 조기대응 전문상담 및 고위험군 스크리닝· 임상기반 마약류 중독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치료연계 재활프로그램 운영· 지역사회 기반 단약지지 모임 등 일상회복 지원 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과학적 근거 기반 연구 수행, 사업효과성 분석 및 정책제안· 전문가 역량강화 및 시민교육

- (전문인력) 정신건강전문의 등 단계적 확보 추진 (총 37명 채용 예정)
 - '24년 4명(마약관리센터장 등), '25년 22명, '26년 11명

- ▶ **(센터장 1명)** 마약관리센터 운영 총괄 및 센터 운영모형 연구 co-work
- ▶ **(중독관리팀 2명)** 인력채용, 예산집행 홍보 및 대내외 협력 등 센터 운영 사전준비
- ▶ **(정신건강사회복지사 1명)** 센터 치료·재활프로그램 및 운영모형 개발 연구용역 수행

○ 추진일정

- '24년 마약관리센터 운영모델 연구 (학술용역) : '24. 6. ~ '25.1.
- 공사 계약 및 리모델링 착공 (은평병원 현대화 사업과 병행) : '24. 10.
- 마약관리센터 운영 (외래 중심) : '24. 11.~
- 마약관리센터 준공 : '25. 상반기

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약류 상담 역량 강화

< 사업개요 >

- (사업대상) 알코올 등 중독문제자 및 가족, 중독관리 실무자
- (주요내용)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, 등록관리, 중독관리 실무자 역량강화
- (사업비) 737백만원 (국비 357백만원, 시비 205백만원, 구비 175백만원)

< 추진현황 > ('24. 7월말 기준)

- (중독센터 운영 실적) 등록사례관리 336명* / 2,035회, 중독상담 1,185명, 재활프로그램 130회/481명, 조기선별 604건, 주민·가족 교육 124회/1,962회
* '24년 중독대상자 현황: 알코올 305명(90.7%), 인터넷 13명(3.8%), 마약 2명(대마초1, 필로폰1)
- (마약류 중독상담가 양성) 전문인력 양성과정(10회/40시간) 완료
 - 수료 인원 : 25명 (정신건강복지센터 15명 /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0명)
- (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) 재활프로그램 총 3종 개발 및 활용 교육
 - 개발내용 : 마약류 사용자 검사도구 2종, 약물사용 문제변화를 위한 자기관리 안내서 1종
 - 활용교육 : 기초 및 중독센터 실무자 대상, 분기별 운영

< 추진일정 >

- 마약류 중독 프로그램(가족프로그램) 개발 : '24. 12월
- 서울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설치(1개소) : '25년 추진
-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약류 중독재활팀 신설 : '25년 추진
 - (팀 신설) 現 1팀(알코올중독관리) → 2팀(마약 중독재활팀 추가)

2. 마약류 유입 점검 강화

① 의료용 마약류 점검 확대

○ 식약처, 서울시, 자치구 마약류 오남용 의심업소 기획·합동점검 (매월)

- (식약처) 월별 점검주제 선정 마약류 오남용·불법취급 의심업소 현장점검

- ▶ (점검주제) 과다처방, 도난·분실업소, 재고량 미관리, 취급보고 부적정 등
- ▶ (점검 품목 확대) 프로포폴, 졸피뎀 위주에서 식욕억제제, 항불안제 등까지 확대

- (서울시)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업소 시·구 합동 기획점검 및 오남용 판정 자문단 운영

- ▶ (대상선정) 의료용 마약류 취급 통계정보서비스 활용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활용
- ▶ (점검방법) 반기별 마약류 오남용 의심업소 선정하여 시·구 합동 현장 점검
- ▶ (결과조치)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서울시 오남용 판정 자문단에 자문 의뢰 및 의심 의료기관·환자 수사의뢰

- (자치구) 매월 마약류 불법취급 의심업소 특별 점검 및 민원업소 현장 점검

- ▶ (점검대상) 마약류 도난·분실업소, 사망자 처방, 폐업업소 마약류 재고 보유 사례 등
- ▶ (점검방법)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등을 대상업소 선정, 현장 또는 서면 조사
- ▶ (결과조치)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

※ ('24. 1~6월 실적) 과다처방업소, 마약류 분실업소 등 470개소 점검(위반 155개소)

- ▶ 주요위반사항: 보고위반 88, 임의폐기 14, 재고차이 13, 업무목적외사용 6 등
- ▶ 주요조치결과: 업무정지(과징금 포함) 45, 경고(행정지도 포함) 78, 고발 6 등

※ (전년도 점검 실적) '22년 416개소 점검(160개소 위반) → '23년 820개소 점검(375개소 위반)

○ 마약류 오남용 관련 제도 개선 건의 및 협조 요청

- 식약처에 「프로포폴」을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대상 품목으로 추가토록 건의
- 서울시의사회와 병원의사회에 「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」 협조 요청

② 유흥업소 단속 및 계도

◆ 식품위생법 및 마약류관리법 개정 (공포 `24.2.6. / 시행 `24.8.7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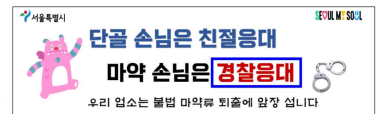
- 수사기관은 유흥시설 마약 적발시 관할 구 통보, 관할 구는 행정처분 시행

○ (법 시행 前 / `24. 4~7월) 업주대상 홍보 강화 및 예방점검 추진

- (홍보강화) 마약류 근절을 위한 '**3단계 조치**' 시행

1단계 (반입차단) 유흥업소 출입문에 **마약류 반입금지 스티커** 부착

- 업소 자율관리 다짐을 위한 **게시물** 제작
- 업주와 손님에게 마약류에 대한 **경각심 부여**



2단계 (자기검사) 오남용 우려 높은 클럽형 업소에 '**마약 자가 검사키트**' 배부

- **영업자 및 손님이 긴급상황에 활용**토록 제공
(클럽 성폭행 주요 마약인 GHB(물뿔) 탐지용 키트)



3단계 (전문진료) 의심 상황시 필요한 **익명검사 및 전문치료** 홍보

- 문어발 포스터로 보건소 익명검사, 은평병원 외래진료 안내
(시 홈페이지 마약예방사업 안내 페이지 QR코드 등 뜯을 수 있게 게시)



- (점검강화) 취약지역 유흥시설 예방점검 강화로 영업자 경각심 제고

- ▶ 강남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 대상 관할 경찰서 합동 주 1회 이상 현장점검

<유흥시설 마약류 예방점검 실적(1~7월)>

- ➡ (점검실적) 963명 투입, 4,812개소 점검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33건 적발(마약류 위반 없음)
- ➡ (홍보실적) 10,423개소 방문, 포스터 등 홍보물 5,000부 배포 및 예방안내

- (간담회 개최) 유관단체 예방 및 단속관련 의견수렴 및 협력 유도

- ▶ 단체(유흥·외식 등) 간담회(5.20), 자치구 간담회(7.18), 檢·警 협력 간담회(7.22)

○ (법 시행 後 / 8월~) 사법기관 합동단속 시행 및 행정처분 확행

- (집중단속) 檢·警 합동단속, 첩보사향 기획단속, 자치구간 교차단속

<8월 유흥시설 마약류 등 특별단속 시행>

- ➡ (추진사유) 식품위생법 개정시행 초기 유흥시설 및 이용자 경각심 고취
- ➡ (추진내용) 市(식품정책과, 안전수사과), 區, 서울경찰청 총 360여명 참여 서울전역 합동점검

- (엄중처벌) 적발업소는 관용없이 행정조치(1차: 영업정지 3개월, 2차: 허가취소) 확행

3.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홍보 활성화

① 청소년 대상 교육 추진

- 중·고등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(시 교육청 협업)
 - 예방 교육 희망학교 수요조사 및 1,500회 현장 교육 강사 매칭 ('24.4.)
 - 현장 교육 홍보 물품(형광펜, 익명검사 키트) 지원 ('24.4.)

【 기관 간 마약류 교육 대응 연계·협력사업(안) 】

- ▶ (서울시) 마약예방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, 역량강화 교육 추진
- ▶ (한국마퇴본부) 역량강화 전문교육 운영, 발굴된 고위험군 상담
- ▶ (서울시교육청) 표준교육교재 개발,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시스템 운영
- ▶ (서울시경찰청) 학교전담경찰관(SPO)교육,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
- ▶ (학회) 교육과정 관련 자문, 강사 전문교육, 의료·인력 교육연계

○ 마약류 예방 홍보 활성화 및 다각화

- 전동차 내부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실시 ('24.4.~)
 - 대시민 마약 예방 홍보 캠페인송 제작 ('24.5.~6.)
 - 세계마약퇴치의날 연계 마약대응 유관기관 합동캠페인 추진 ('24.6.)
 - 대학 및 유흥가 밀집지역(강남, 홍대 이태원 등) 역사 및 전동차 내부 홍보물 부착('24.8.)
- ※ 전동차 내부 2,500여면, 시내버스 내외부 600여면, 구두수선 가판대 620여면 등



< 마약 예방 및 근절 홍보 포스터 >

② 대학생 대상 마약류 상담·교육 강화

- (추진개요) 시립대 및 市 소재 대학들과 연계, 청년층 대상 상담·교육
 - 대학 상담센터를 통해 대학생 마약류 사용자에게 대한 기초 상담(익명) 제공, 상담내용에 따라 마퇴본부, 은평병원 등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
 -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(OT), 교양 강좌 등을 활용한 대학생 예방교육 추진
- (추진방법) 각 대학 및 약사회, 마퇴본부 등과 협력, 마약류 중독 상담인력 배치 지원 및 마약 투약 위험성 관련 사례중심 강의 제공

<마약류 관리정책 워크숍 개최>

□ 개요

- 일 시 : '24. 8. 9.(금) 14:00
- 장 소 : 시의회 제2대회의실
- 주 최 : 서울시, 서울시의회 마약청정도시서울을위한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장
- 참 석 : 약 80여명
 - 김영옥 「마약청정도시서울을위한특별위원회」 위원장,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, 김태희 시민건강국장, 최현정 보건의료정책과장, 이상규 한림대 의대 교수, 장옥진 인제대 의대 교수, 김장래 국립중앙의료원 교수, 김나미 삼육대 교수, 조성남 은평병원 중독치료 전문의 등

□ 주요내용

- (발제1) 최신 마약류 현황 및 서울시의 마약류 대응 방안 제언 (장옥진 인제대 교수)
- (발제2) 서울시 마약류중독자 치료·재활 정책 추진 방향 (조성남 은평병원 중독치료 전문의)
- (토 론) 서울시 마약류 대응 정책 및 분야별 전문가들 해법 논의 등



IV 향후 추진방안

- **(중독재활 인프라 구축)** 마약관리센터와 연계, 중독재활센터 확충
 - (신설) 시립병원 등에 중독재활센터 설치 검토
 - ※ 마약관리센터 치료 후 중독재활센터에서 일상 복귀 및 사례관리 등 지원
 - (강화) 기 운영 중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내 마약관리팀 신설
 - (연계) 마약관리센터 연계 마약류 중독치료·재활모델 개발
- **(의료용 마약류 단속)** 마약류 오남용 의심업소 전수 점검
 - 과거 위반업소는 근절 시까지 주기적 단속
 - 과다처방 의료기관 및 민원 접수된 시설 대상 점검
- **(홍보 및 예방교육)** 청소년·청년 등 중독취약계층 집중 홍보
 - (청소년) 교육청 등과 협업하여 마약류 위험성 및 근절 캠페인 실시
 - (대학생) 대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교육화 추진